

가족 공동체의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이 보 민*
(부교수, 윤리학)

1. 창조 질서로서의 일부일처제

가족 공동체는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Schöpfungsordnung)이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본래 어떠한 구조와 기능과 목적을 가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그 가족이 지금 기독교인에게 어떠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는가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본래 세워진 가족 공동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문제를 주는가도 생각해 볼 것이다. 우선, 가족 공동체만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23-25절)”고 하셨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남1녀를 부부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1부1처의 가족제도를 세우셨다.

이것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해보신 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아담의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도록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을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계속 유효한 일종의 명령(Imperative)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수준의 자연법(Naturrecht)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못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일처의 가족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지니는 어떠한 형태의 질서(Ordnung)이다. 그 질서가 창조시부터 생겨진 것이므로 창조

* 고려신학교, 미국 웨스터 민스터, 화란 캄펜 신학대학원(Th. D) 원, 신학대학원 윤리학 교수.

질서(Schöpfungsordnung)라 불리운다. Emil Brunner는 말하기를, “생의 유지와 진척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생에 대한 일반적인 창조법칙들은 개개의 것이 아닌데, 이유는 이웃이 우리와 개개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창조질서라고 부르고자 하는 특정한 공동체 질서(Gemeinschaftordnungen)를 지키는 구성원으로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인간들이 함께 삶에서의 주어진 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역사적인 생(生)에 있어서 불변적인 전제로서 그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형식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가변적이지만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불변적이고 또 동시에 특정방법으로 인간들을 서로서로 지적하고 연합되게 한다”¹⁾라고 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창조와 인간의 창조적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피조인 인간들은 범죄를 통해 타락한 죄인으로만 인식될 뿐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오히려 창조질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런 창조질서를, 죄로 인해 서로서로 분리되어지고 내면적인 의지에 있어서 공동체없는 존재가 되어진 인간들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 단지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인간의 생을 다시금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로서 인식한다”고 했다.²⁾ 다시말해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인으로서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가족이란 틀 또는 질서 속의 존재로 지으셔서 죄로 인해 그런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해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Brunner의 견해에 대해 Karl Barth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³⁾ Brunner에게서 창조질서를 지나치게 독립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Barth는 말하기를, 일반법칙(Gesetz)과 창조질서는 단지 우리가 타락한 일반 생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은혜에 의한 생활의 영역과는 때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은혜 생활의 영역과 일반적 생활의 영역의 것을 나누어서, 우리의 결혼 생활, 즉 일반생활의 영역에 관계되는 결혼에서의 창조질서가 우리의 은혜 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 가족을 못이루는 것이 그 법과 긴장 관계에 전혀 놓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는데, 이런 긴장을 말하는 Brunner는 지나치게 창조질서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긴장관계에 놓이지 아니하는 창조질서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앞에서도 논의된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족을 형성시키실 때 어떤 질서설립과는 무관하게 단회적인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처럼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겼을 때에 범죄가 될 수밖에 없으나 창조질서, 그것을 어긴다는 것 자체로서 범죄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8절 이하에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적 차원의 명령이었다면 바울은 그 계명을 어길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의 질서일 뿐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는 달리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켰을 때에 좋은 것이며, 좋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질서를 논한다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명령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제2의 계시가 인간의 일반적인 삶에 내포되고 있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Barth가 창조질서의 문제를 꺼리는 이유인데 그것은 지나친 염려인 것 같다.

창조질서가 결코 계시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에서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므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압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결혼이라는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Parousia의 조속한 도래가 그런 질서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일 창조의 질서가 계명과 같은 수준의 것이었다면 절대적이어서 Parousia의 압박한 도래라고 할지라도 그 절대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질서로서의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에 좋은 하나의 ‘틀’(framework)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 일인지 그렇게 언제나 분명히 알려지지는 않는다. 그럴 때에 그 일을 용이하게 해줄 ‘틀’로서의 창조질서가 많은 사람에게에는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나는대로, 바울 사도와

1) Emil Brunner, *Das Gebot und Ordnungen*(Zürich, 1939), p. 194.

2) *Ibid.*

3)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4* (Zürich, 1951), p. 20ff. 참조.

같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창조질서로서의 결혼 및 가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러나 바울도 말했듯이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이 불타는” 보통의 사람에게에는 결혼과 가족이 하나의 틀로 주어져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창조질서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의 기본구조, 즉 1부1처와 자녀라는 구조만 지켜지는 한, 그것의 외형적인 모습은 가변적이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좋도록 바꾸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1부1처의 가족이 가지는 모든 외형적인 형태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지키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바로 아는 기독교인들은 1부1처의 가족제도의 기본을 지키는 한, 그 가족을 운용하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때로 핵가족적으로도, 또는 대가족적으로도,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테네식”으로도 때로 “스파르타식”으로도 그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부간의 관계도 때로 좀더 민주적, 대화적으로 더러는 “부부유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가족의 분위기가 우리의 취향에 맞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가족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데 좋은가일 것이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물론 동일하겠으나, 때로 그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지키고 운용해 나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잘 섬기고 가족끼리 신앙적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언제나 엄격한 sparta식의 가정교육만을 통해서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때로 athene 식으로 자유롭게 성장해 가는 가족원들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언제나 아테네식으로 성장한 자녀들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는가? 때로 엄격한 분위기에서 훈련받은 자녀들이 더욱 주님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 신앙적인 헌신을 하게도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일처의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Gabe)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단순한 선물만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것의 기본골격을 파괴하지 않은채, 어떻게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실천해 보아야 할 과제(Aufgabe)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신적인 기원으로서의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찌하여 기독교인의 계명적 실천에 도움을 주는가? 앞에서 논의한대로, 결혼과 가족은 “정욕에

불타는”, “절제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를 섬기는 데에 아무리 해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쉽게 좌절해 버리기 보다는,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으며 또 한 사람이 좀 좌절하고 주를 멀리하려고 해도 그 배우자의 견제와 도움으로 주를 떠나는 일이 혼자였을 때보다는 덜 용이한 일이 되어짐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면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의 창조질서로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족을 포기하게 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계속 유지하여 신앙이 오히려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태 19장에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3절)에 대해서, 즉 이혼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가부(可否)로서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결혼은 본래 창조시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이를테면 ‘창조질서’인 사실을 깨우치고 계신다(4, 5절). 그리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고 하였다(6절).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시에는 하나님에 의해 이혼이 허용되었던가(7절)하는 바리새인들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8절)고 대답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해서 이혼에 대한 최초 질문에서 그 대답에 앞서 결혼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사실, 인간들이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결혼관이 성경에 바로 기초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창조질서로서의 바른 결혼관이 아닌 어떤 다른 결혼관도 결과적으로 인간들을 이혼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인간이 어떠한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도 그것이 그들이 일부일처로서 백년해로하는 일에 대해 절대적인 보장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결혼을 인간들의 애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애정은 때로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여파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인간들이 자기들의 특정 배우자와 그런 본능에 가까운 사랑으로 하나되고 싶어한다면 거의 같은 수준의 본능적인 감정으로서 그 같은 배우자를 싫어하게도 되는 것이 바로 그 인간들이다. 때로 결혼이 인간의 이성적인 자기판단 위에 근거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그 결혼이 때로 애정이 없어서 책임과 논리에 의해서만 이끌릴 경우가 있다. 그 때에는 서로가 그런 책임을 지켜야 할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그 결혼도 그의 근거를 잃게 된다.

애정없이 어떠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합쳐진 부부는 그 사업이 더 이상 진

전될 필요가 없게 됨과 동시에 헤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들은 어떠한 결혼관 위에서도 자신들의 결혼관계를 언제나 진정으로 지속시킬 수는 없다. 감정과 이성애 의해서 그 분위기나 판단의 기준 등에 있어서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쌍의 남녀가 어떻게 모든 여건을 넘어서서 그 결혼을 지속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 결혼이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질서이면서도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이 절대적은 아니고 그것의 가변적인 면을 기독교인 스스로가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결혼생활과 가족은 원만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가족원들 각각의 신앙은 돈독해질 것이다. 때로 가족 중에 불신자가 포함되거나 온갖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있어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독교인 가족원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가족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 이 일은, 한 마디로 자신의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바로 알고 그뿐 아니라 이 결혼과 가족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드릴까를 연구,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백년해로하는 결혼은, 기독교인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는 바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점을 바로 알고 또 비록 가족과 결혼이 구체적으로는 내게 대단한 피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총을 깨달아 구원받은 개인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차원에서, 현실의 결혼이 내게 주는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그 결혼의 형편을 내가 고쳐가는 과제로 수행하는 노력을 통해 잘 유지될 것이다. 그 결과 신앙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이웃도 사랑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질서로서의 결혼이 타락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지만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그 진정한 의미가 인식되지 못한채로 유지된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은 일부일처의 결혼과 가족을 올바른 결혼관, 가족관이 아닌 다른 전례를 가지고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랑, 본능, 이상 등등...! 그러나 그것이 한평생 하나의 배우자를 향해 과연 지켜질 것인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때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한없이 생길 것인데, 만약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인생들은 결혼의 굴레에서 억지로 묶여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도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시대에 “완악하여” 성경적인 결혼관을 배격하는 인간에게, 앞에서 말한 굉장한 불행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혼할 것을 허용하셨다. 그것은 그들 인생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차원

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즉 자연은총적 배려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본래’는 인간들이 이혼해도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8절)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9절)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음행으로 결혼과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인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면 결혼이라는 창조질서를 어겨서가 아니고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계명적 명령을 어겨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계명적 명령을 하심에 있어서 성경적 결혼관을 먼저 확립 내지는 재확인하고 계신다. 만일 어떤 인간에게서 이와 같은 바른 결혼관이 미리 확립되어 있지 않은채로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에게 말할수 없는 갈등과 억압만이 될 뿐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이혼할 수밖에 없을 그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히려 무모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 명령에 따라 결혼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성경적 결혼관, 가족관을 먼저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이다.

2. 비(非)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일부일처제의 모순적 구조와 그 해결의 노력

그런데 이렇게 인간타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창조질서로서의 결혼과 가족이 타락하여 그것의 참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 질서로 나타날 것인가? 일부일처의 결혼 및 가족의 구조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은 Helmut Thielicke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한다면, 전(前)역사적(vorgeschichtlich) 요소와 역사적(geschichtlich)요소들이다.⁴⁾ 전자는 창조질서로서의 가족의 선물(Gebe)적 요소가 세속화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 각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가족은 또는 결혼까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요소가 필연적이다. 우선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하였을리가 없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선택한대로만 출산했다고 볼 수 없다. 서로를 선택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자신이 충분히 선택권을 발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소가 상존한다. 중매, 소개들도 그렇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의 자신들의 선택시 충분히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서 행한 선택이 아님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저런줄 알았었다더라면 그와

4) Helmut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III(Tübingen, 1968), p. 75ff.

결혼하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확실히 내눈에 무언가가 띄었었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주 듣게 된다. 이와같은 전역사적 요소가 옛날에는 가족의 질서의 구조를 이루는 유일한 요소인 것으로 자주 생각되었었다. 결혼과 가족은 숙명이요 또는 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체념해 버린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과 가족을 숙명으로 쉽게 보아 버린 것은 가족의 구성 속에 전역사적 요소 외에 역사적 요소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가족구조 속에는 또한 역사적 (geschichtlich)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의 과제 (Aufgabe)로서의 요소가 세속화된 것으로서, 그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자기선택의 범위내에 있는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특별히 부부는 서로 선택하여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출산하여 교육하게 되는 면이 있다. 자녀들 역시 부모를 선택한 적은 없으나 그들이 부모를 섬기거나 모심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의 범위 내에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것은 내가 선택하기 이전의 요소이지만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나의 생각, 판단, 감정 범위 내에 드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요소도 전역사적 요소와 더불어 인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졌는가에 관계없이 언제나 있어 온 것이었다. 19세기 이전까지 사실상 이런 역사적 요소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되어 오지 못하다가 19세기 Engels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강하게 부각되어졌다.

그는 그의 책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1884)에서 일부일처제 (monogamie)는 역사 이전에 신적인 기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⁵⁾ 그 말은 일부일처제의 결혼과 가족은 인간들이 선택해서 이루는 것이상으로 신적인 또는 숙명적인 형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곧 결혼과 가족의 구조내의 전(前)역사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일부일처의 결혼과 가족은 인간의 역사 속에 차츰 발달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Engels는 주장한다. 이것은 곧 인간들이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일처제의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가족의 구조에는 전역사적 요소보다는 역사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 요소보다 전역사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그 가족이 신적인 기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특정계층의 인간들이, 역사적 요소가 강한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가

족을 마치 신적인 기원의 것이나 숙명적인 것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자들이 가족을 인간선택의 것이 아닌 것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자본의 축적과 사유재산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그 축적된 자본과 재산을 자기의 후계자에게 물려 줄 것을 소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일부일처제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1부1처 결혼제도에 의한 가족제도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에 의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부1처제가 처음 생겨난 것은 약간 봉건적 형태, 또 자급자족 형태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였는데, 그것이 차츰 산업사회적인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 가족제도에도 역시 변화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급자족시대보다 훨씬 가족의 구조는 그 구성밀도가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Engels에 의하면 자본주의에 의한 1부1처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부패된 형편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에 의한 1부1처는 사실상, 그것이 어떤 자기재산 수집과 관련되므로 남녀들이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 못하는 잘못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결혼상대들은 어떤 특정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배우자 선택은 자기들의 사회계층인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배우자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연히 또는 예외적으로만 배우자를 얻게 될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1부1처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진정한 배우자를 선택 못한 불만을 결혼 외적인데서 찾으므로서 형식적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사창, 공장들이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겉으로는 1부1처를 지키는 듯 하면서 뒤로는 죄악을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적인 moral이 생기는데 남자는 결혼외적인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고, 여자는 안되는 이런 모순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Engels는 개탄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1부1처제도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제도에 얽매인 1부1처제도가 아닌 순수인간학적인 그런 1부1처를 주장한다. 너무나 그 partner라고 하는데 억지로 묶이지 않는 그런 가족이 허용되는 사회는 부인의 위치가 존경받는 여성상위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산당들은 선언했다. 이런 공산주의에 의해 말해지는 결혼이란 어떤 초월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 그대로 얽매인, 즉 사랑의 감정에 따라 결합했다가 헤어졌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Engels가 말한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오래도 가고 오래 안가기도 하는 그런 식의 것이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결혼관이다. 이것이 소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정화’된 1부1처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관에 의해 소련은 혁명 초기에 결혼에 관한 법률들을 급격하

5) Ibid., p. 90f.

게 변혁시켰다. 1919년과 1926년에 발표된 법에 의하면 결혼은 철저히 사회적 계약이므로 공적으로 당국으로부터 허락받을 것도 아니고 헤어짐도 아무나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고 단지 이혼을 원하는 자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신고만 하면 이혼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유산시키는 것도 철저히 허용되어 1926년에는 100명 중에 90명은 유산시키는 정도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Engels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전역사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던 1부1처제도는 자본주의가 그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이를테면 전략결혼을 시켜 자본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서 생겨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각자의 본성에도 맞지 아니한 1부1처제의 결혼과 가족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제도에 숙명적으로 체념하여 묶여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자본주의들은 그 결혼제도를 전역사적 요소를 가지는, 즉 숙명적인 진척인 기원의 제도인 것으로 거저되게 부각시켰다고 Engels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런 거저된 속임수로부터 해방된 1부1처제는 인간의 본성에 맞고 인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즉 인간 자신들이 선택하여 만든 자신들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결혼과 가족이요 그 속에는 단지 역사적 요소만 나타나는 구조의 제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나름대로 조화되어 나타난다는 “사랑”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1부1처의 결혼과 가족을 소위 인간의 본성의 근거 위에 놓고자 할 때에, 전술한대로 그 1부1처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그것은 소련에서의 공산혁명 직후에 즉시 현실로 나타났다. 즉 혁명후 결혼과 이혼, 임신중절 등을 완전히 자유화시킨 후에 너무도 윤리적, 성적으로 문란해지자 소련 가족법은 차츰 이혼이나 낙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 시작했다. 1936년에 선포된 가족법에 따르면 아직 일방적인 이혼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혼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 1944년 이후의 가족법은 우선 신고되지 않은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 상대가 필요로 하면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불하도록 만들었고, 합의이혼은 가능해도 그 이혼이 자신에게 해로울 때는 허용치 않도록 했다. 이혼은 단지 결혼이 공산주의 도덕에 안맞고 자식들의 교육과 동거생활에 전혀 불가능할 때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처음 입장과 다른가? 이들이 결혼을 인간의 산물로 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스스로 보고 혈레벌벌 오늘의 법을 옛날로 환원해 버린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로 세웠던 바의 1부1처를 전적으로 인간 본성에 의한 인간의 산물로 잘

못 과소평가한 결과였다.

분명 1부1처제도에는 역사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역사적 요소도 분명히 함께 상존한다. 다시 말해서 본래 창조질서였던 1부1처의 결혼, 가족제도는 타락한 인간에게 전역사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함께 구성요소로 지니는 하나의 질서구조로 의식되어지는 것이다. 본래 창조질서로서의 1부1처는 하나님이 세워져 인간에게 주신 선물(Gabe)이었는데 그 선물로서의 요소는 하나님을 믿지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단순히 인간의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역사적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창조질서의 과제(Aufgabe)의 요소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단순히 인간 자신의 본성에 따른 선택의 범위내에 머무는 역사적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동시에 과제로 나타날 때 그 두가지 요소(선물, 과제)들이 그들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모순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지만 그 창조질서가 불신자들에게 단순히 전역사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가지는 질서구조로 나타날 때 그것은 그들 불신자들에게 모순과 갈등을 준다. 즉 하나의 질서구조에 나타나는 전역사적, 역사적 요소들은 상호충돌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즉 전역사적인 요소는 우선 나의 선택의 밖의 것이므로 내게 대해서는 ‘숙명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요소는 나의 선택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즉 내가 선택했으니 나의 콘트를 한계 내의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전역사적 요소를 볼 때에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 내가 책임질 필요없는 것, 즉 내게는 의미가 없는 요소로 격하되어진다. 한편 전역사적 요소 중심으로 역사적 요소를 볼 때에 그것은 가족이 갖는 숙명성, 인륜(人倫)적 성격을 무시하는 불륜적인 것이 된다. 이 두가지는 서로 상대를 격하시키면서 나를 가족을 향한 태도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도록 한다. 물론 소위 행복한 가정역전 속에서도 그 두가지 요소들이 적어도 임시적으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게 모든것을 가능하도록 베풀어주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선택한 일은 없었지만 그 선택한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전역사적 요소를 격하시키기보다는 “고마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그 부모를 나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모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역사적 요소도 구태여 불륜적인 것으로 매도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갈등과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녀들에게 출생시켜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는 무능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는 부모 슬하의 자녀들은 나는 저런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부모를 원망하고 숙명과 신을 거부하게도 된다. 그러나 이런 자녀들도 숙명으로 맺어

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식으로 그 전역사적 요소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선택의 범위내에서 대하겠다는 식의 역사적 요소를 패륜아적 발상으로 매도하게도 된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숙명이지만 “내가 선택하지도 아니한, 저렇게 내게 문제만 일으키는 원망스러운 부모”를 향해 어떻게 한정도 없이 희생을 해야한단 말인가 하고 고민한다. 부모를 향한 ‘효행’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부모”라는 식으로 전역사적 요소를 격하시키면서, 약화되거나 제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원의 마음 속에서 그래도 부모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과 저런 문제있는 부모를 내가 선택치도 않았으니 내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상호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겉으로 행복한 가정일 때에 앞에서 말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은가? 그런 가족에도 갈등의 요소가 언제나 잠재력으로 숨어 있다. 좋으시던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전에 없던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구조에서 두 가지 상호모순적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식으로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전역사적 요소의 측면만을 중시하고 가족원들로 하여금 숙명이라는 의식 속에서 체념적으로 그 가족제도에 묵이도록 하면서 전술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럴 때에 인간들이 자신이 가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을 향하여 또 그를 위하여 논리적으로 가지는 자율적인 책임을 의식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부분은 거의 목살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다. 확실하게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책임에 따르지 않고 막연히 “나는 효도를 해야한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족에 대해 순종하고 살 뿐”이라는 그와 같은 태도로서 사람들이 전통사회에서는 그런대로 체념적으로 가족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단순히 숙명적 체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더군다나 다른 가족원들은 자기만큼 체념 속에서 희생적으로만 살지 아닐 때 혼자서만 그렇게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전역사적 요소 일변도적으로 가족구조 속의 상호충돌의 갈등의 요소를 해소한다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비해 19세기 중엽 이후에 현대에서는 오히려 그런 가족구조내의 갈등의 문제를 역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Engels의 주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1부1처제는 가족구성원들이 그들

의 본성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 형성하는 결혼 및 가족이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부1처의 가족은 인간의 진정한 본래적인 모습에서 유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신적인 기원이나 어떤 이념적인 또는 숙명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그 결혼과 가족을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성(理性) 일변도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형성을 사회를 위해 또는 산업과 국가를 위해 또는 신을 위해 이론다고 과장하면서 한편 자신들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애정, 애욕, 욕구 등은 가족 밖에서 은밀히 충족시키는 그와 같은 이중윤리구조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의 거저되고 위장된 결혼과 가족이 곧 자본주의의 일부일처제도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거저된 일부일처제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을 왜곡시키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성들을 더욱 왜곡시킨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남성들에게는 왜곡되기는 했으나 본능적인 본성을 이중윤리 구조 속에서 서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이중윤리 속에서라도 그 본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자본주의적인 전통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해방은 여성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공산혁명 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자본주의적 가족제도에 서부터 해방시키는 여성해방운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에는 오히려 신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새롭고 과격한 여성해방론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격한 해방론자들도 옛날 여성들이 남성들 외도를 많이 관용했으므로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외도를 관용해 주어야 할 때라고 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어도 여성이 가정에 묶여 있으므로 진정한 여성 해방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은 그 원리에 있어서 신맑스주의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인간소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맑스주의를 따른다는 점이다. “사회”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기술 이데올로기와 퇴폐문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들의 감정과 이성이 올바른 조화를 상실한다는 의미의 소외를 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여성들이 1부1처의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틀에 묶이게 된다는 것도 그와 비슷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본능과 그에 가까운 감정을 지나치게 소위 “여성화”로 이끌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조화된 전인격에 있어서 소외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존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퇴폐문

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지나친 감정적인 인간으로서 소외되어지기도 하는데, 여성들은 이와 같은 퇴폐문화시대 이전에서부터 일부일처 결혼, 가족제도에 의해 또 다른 의미의 감성화, 본능화의 소외를 당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본능과 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는데, 그것들이 인간의 지성적인 이성과 합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소외의 의미였으며,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들과는 다른 소위 여성적인 본능을 가진다는 의식에 의해 아동 때부터 “암전하게”, “다소곳하게” 여성다운 것을 강요받았고 여성들 자신도 “현모양처”로서 모성애를 가장 고귀하게 발휘하는 그런 여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럴때에 여성들은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사회적 활동으로 발휘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를 아니한다. 그것은 곧 여성들이 부당하게 모성애라는 본능과 감정중심으로 자신을 왜곡시켜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 신맑스주의자들은, 일부일처제의 결혼과 가족이 그 구조에 있어서 전역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보장된 사회에서의 활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가정에 오히려 머물려고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전역사적인 요소라는 것이 실재(reality)가 아니고 전통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거짓되게 꾸며놓은 바, 허구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이들 신맑스주의자들은 일부일처제의 결혼과 가족을 인간들이 자신의 본성대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 즉 전적으로 역사적 요소만을 그 구조에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들에 의하면, 결혼과 가족은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서 소외되어진 사회(그 속의 모든 인간들이 소외되는 사회)속에서 그 사회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사회화 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본성, 즉 본능 및 감정 그리고 이성을 조화 속에서 합당하게 표현하고 발휘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화(socialization)될 필요를 느끼는데 바로 그 필요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형성한 것이 가족이라는 기본기구(institute)라는 것이다.

3. 가족과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

이 가족이 우선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Habermas는 말하기를, 가족의 기본구조는 사회화를 주관하는 자(socializationsagentur)로서의 역할과 상호관련이 있다고 한다.⁶⁾ 어떠한

포유동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남성으로서의 인간이 가족의 일원이 됨은 성(性)적인 기능과 부양의 기능이 통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은 Habermas에 의하면, 성적인 관계와 남녀 성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의미의 분업을 연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⁷⁾ 결국, 결혼에 의한 핵가족 기구에는 인간 생(生)의 사회로의 재(再)생산(reproduction)에 필수적인 네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들은 후손 생산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사회화하는 것이며, 부부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원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일이다.⁸⁾ 그것들 중에서 후손의 생산과 부부의 성적 필요 충족은 남녀성의 관계를 통한 기능일 것이고 자녀의 교육과 경제적 부양의 기능들은 남녀 성차이에 따른 분업의 요소일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화의 과정은 중요하다. 아동은 양친의 남녀 성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과 부모라는 세대가 자녀의 세대로 향해서 기능하는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일차시킴으로서 배우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세대의 차이 때문에 이차적인 역할 연습(Rollenlernen)에 대해 동기적인 근거를 형성하는 부모 권위의 내면화가 가능해진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성적 역할을 자기의 것으로 일차시키는 일은 어른이 됐을 때 시행할 수 있게 될 “기대되는 기능”의 유보하에서 일어난다⁹⁾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성’과 ‘세대’의 역할을 과연 배우는가 또는 어떻게 배우는가의 문제는 가족의 대화의 구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¹⁰⁾ 가족이라는 생활세계(Lebenswelt)의 내면적 구조(die innere Struktur)는, 가족원들 사이에, 첫째로 집단적 정체성(正體性)과 개별화 사이의 만족할만한 균형이 수립되는가, 둘째, 투영된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과 개개 가족원의 실제로 인정되는 정체성 사이에 만족할만한 일치가 있는가의 문제들과 결부가 된다.¹¹⁾

자녀의 성장에서의 학습과정에 그런 대화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주위세상에 대한 관계라고 한다. 외적인 관계는 먼저 가족원들이 일치가 되어 다른 가족에 대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가의 문제와 가족이 주위세계에서 고립되는 것과 그 속으로 용해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는가의 문제와 결부된다고¹²⁾한다. 결국, 가족 속에서 인간들은 ‘역할’을 지니게 되는 ‘사회

7) *Ibid.*

8) *Ibid.*, p. 135.

9) *Ibid.*

10) *Ibid.*, p. 137.

11) *Ibid.*

12) *Ibid.*

6) Jürgen Habermas, *Kultur und Kritik*(Frankfurt a/m, 1977), p. 134.

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성별, 세대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로 되어 지는 요소와 또한 성적, 세대적 차이가 있는 자들 사이의 노동의 분업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화를 배우는 아동들은 그것을 통해 나중에 사회에서의 역할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아동들이 배우는 역할은 역으로 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의 사회적 역할들(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한 역할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남성들의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역할이 가정으로 들어올 때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면이 생긴다. 즉 일부일처의 결혼과 가족은 인간의 사회적인 역할 담당을 위한 역할 학습을 위한 장소라는 것이 이들 신맑스주의자들의 가족관이라고 하겠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이 되는데 만일 그 사회가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또는 소외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역으로 결혼과 가족구조 내면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내에서의 역할학습 역시도 그런 소외된 사회에 맞추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신맑스주의자들은 가족에서의 역할학습이 사회적 차원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적 행위를 행하는 결함을 배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족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럴 때에 가족이란 기구(institute) 또는 공동체는, "인간이 함께 산다"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를 결국 대화적 행위로 인해 연합되는 system으로 정의할 때에, 그것에 직결되고 또한 그것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sub-system이 된다. 이것이 이들 신맑스주의자들의 일부일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견해이다.

4. 해소될 수 없는 갈등구조

따라서 가족구조 속에는 전역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역사적 요소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과 결혼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선택의 결과이고 각각의 가족원들, 특히 부부들은 개인으로서 자신들의 필요충족에 맞다는 조건하에서 상호계약으로 결혼과 가족을 이루고 그런 자기 필요충족을 이루는 한에 있어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결혼은 전적으로 계약이 될 뿐이고 계약의 파기와 더불어 결혼은 저절로 무효화된다. 여기에는 철저히 전역사적 요소는 찾을 길이 없고 전적으로 역사적 요소만 나타난다. 그로인해 그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일어나는 내부적 갈등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한대로, 비록 타락한 인간들에 있어서의 결혼과 가족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요소와 과제로서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두가지 요소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전역사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두가지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호충돌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호충돌의 문제를, 실제하는 그 두가지 요소 중의 하나를 없이 해버리고 나머지 하나를 중심으로 억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 숙명만을 중시했을 때의 가족이 그 속의 갈등을 강압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들이 현대화되면서 늘림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런 전통적 가족관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가족을 전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따른 자기선택의 범위 안에서 인간끼리의 계약으로 생각하는 가족관 역시도 인간의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상호충돌을 해결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었다. 앞에서 취급한 소련에서의 혁명 후의 가족법 변천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실, 결혼을 극단적으로 계약으로 보는 것은 결혼에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결혼이 부부의 선택만이 아니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요소도 내포되므로 그 계약으로서의 결혼개념은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을 아무리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만일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는 그 가족은 피치못하게 자신의 선택 이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가족구조 내에는 전역사적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결혼을 계약으로만 본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처사이다.

결론적으로, 본래 창조질서로서의 결혼과 가족을 하나님없이 이해할 때에는 전역사적, 역사적 요소에도 피치못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호충돌에 의한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다. 단지 인간들은 그 가족 속에서 그갈등을 잊어버리고 다른 의미의 보람이나 향락으로 지내고 있을 뿐인데, 그런 보람이나 향락은 언제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럴 때에 가장 본래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갈등은 언제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들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5. 기독교인에 의해 유지가 가능한 가족 구조

결혼과 가족을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바로 이해할 때에만 가족공동체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독교인 가족원들은 결혼과 가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잘 섬기게 되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1부 1처제를 유지하는데에 결정적인 목적이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알아야 한다. 옛날에 결혼생활에서 누리던 육적, 정신적 행복감을 이제 다

시 누릴 수 없다고 하여 그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기독교인 가족원들도 결혼과 가족생활을 통해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그런 '행복'의 가정이 올바르고 이상적인 기독교 결혼 및 가정은 아닐 수가 있다. 기독교의 올바른 결혼이나 가족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각자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배우자의 남편과 아내로, 나의 자식에게 부모로, 나의 부모에게 자식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위에 서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기독교인은 자기에 대해서 다른 가족원들이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든지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자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우자, 자식, 부모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 헌신, 봉사할 과제를 결혼과 가족 내에서 가지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가족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바른 이해로 자신이 그런 과제를 수행할 각오를 하고 실천하고 있을 때에 그 결혼과 가족은 가장 올바른 것이 된다. 이런 과제를 실천해 가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돈독해지니 가족원에 대한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이웃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실현을 가족 밖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근본적 갈등의 문제는,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저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책임을 해야 한단 말인가"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에서의 창조질서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타락 후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적으로 허용하신 가족 외의 공동체들을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일에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기독교인 결혼과 가족의 사회 안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겠는데, 사실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족을 타락한 현사회를 무시하고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사회 속에서 악영향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독교인 가족과 결혼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인가? 특별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1부1처제의 결혼과 가족이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 외에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독일학자 R. König가 말하는대로, 두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¹³⁾

그것은 비(非)통합화(Desintegration)와 비조직화(Desorganisation)로 표현되어진다. 전자는 가족의 외적인 사회적인 기여를 가족 외의 '사회'에게로 양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후자는 가족의 내적인 상호인밀성이 약화

되어짐을 암시한다. 비통합화는, 쉽게 표현해서 옛날에는 개개 가족단위에서 웬만한 생활필수품을 자체로 생산했어야만 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잔치 때에 떡, 술 등을 자체에서 자급자족했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서양에서도, 빵굽고, 맥주 담그는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맑스주의자들의 말처럼 가족의 생산의 공동체에서 차츰 소비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이와같이 생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에서도 점차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옛날 보다는 오늘날 자녀교육을 공식적인 제도적인 학교 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는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공식 교육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한다. 또는 교인들은 교회가 종교교육을 맡도록 한다. 또 가족은 '사회'에게 점차 가족원의 보호를 맡기게 된다. 우선 의료적으로 의료보험같은 사회적인 기구에 가족원의 건강문제를 맡기고 노후대책도 그런 공적인 기구에 맡긴다. 또한 이런 비통합의 경향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자급자족제도에 따라 거의 모두가 그의 가정이 자신들의 직장이었다. 그러나 점차 가정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가장들의 생의 전부가 가정이었으나 차츰 생의 일부를 사회에 바치게 되는 경향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비조직화(Desorganisation)의 경향이 일어난다. 이것은 가족의 내적인 상태가 가장중심의 체제에서 파트너 형태의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들이 직장을 가정 외에 둬서 집에서 가장으로 활약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또 다른 가족원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장의 권위가 점차 쇠퇴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가족원들이 가족원들의 위치를 경제활동의 기능에 따라 평가해 보려는 경향이 생긴다. 즉 누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이끌고 있는가에서 가장의 권위 내지는 지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늘날의 소위 산업사회가 가족에게 입히는 영향인데, 이와 같은 경향이 1부1처 결혼 및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통적 가족상(像)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바른 제도를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과 가족은 창조질서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다는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경향도 가족공동체를 근본적으로 가족이 아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즉 가족의 형태에 어떤 변화가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곧 바로 창조질서로서의 결

13) H.Thielicke, *op. cit.*, p. 96ff.

혼과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변화의 소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사회 속에서의 변화를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정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과제인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그렇다고 현대적인 경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만 취하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신앙적인 긴장 속에서 이 시대의 경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배척하면서 기독교인인 나의 가정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각자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진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기독교론적 해석

고 재 수*
(부교수, 교의학)

1.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는 구약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 읽을 수 있다. 예를들어 그 당시의 높은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이 있다(삿8:26, 겔23:6, 예8:15, 단5:1). 또 그 당시에도 전쟁을 할 때는 모략을 사용했고(수8장), 또 어떤 때는 장난으로 전쟁을 했다는 사실(삼하2:14이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런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도 연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경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요소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해석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보다 더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자세히 지키고 또 구약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여 그 행동들을 가지고서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하기도 한다. 가령 십일조에 대한 율법(신14:22이하)은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10%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또 금식하며 베옷을 입은 다니엘의 기도(단9장)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금식기도도 좋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사용법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도덕적 해석방법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처음의 방법과 비교할 때 분명히 성경의 목표에 더 가까운 것이다. 첫번째의 방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이 방법에는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당신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해석은 구약의 핵심을 무시하는

*본명 N.H. Gootjes, 캠퍼신학교, 캠퍼신학대학원, (Th.D), 현, 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